



국립 3·15묘지와 3·15의거 기념관

March 15 National Cemet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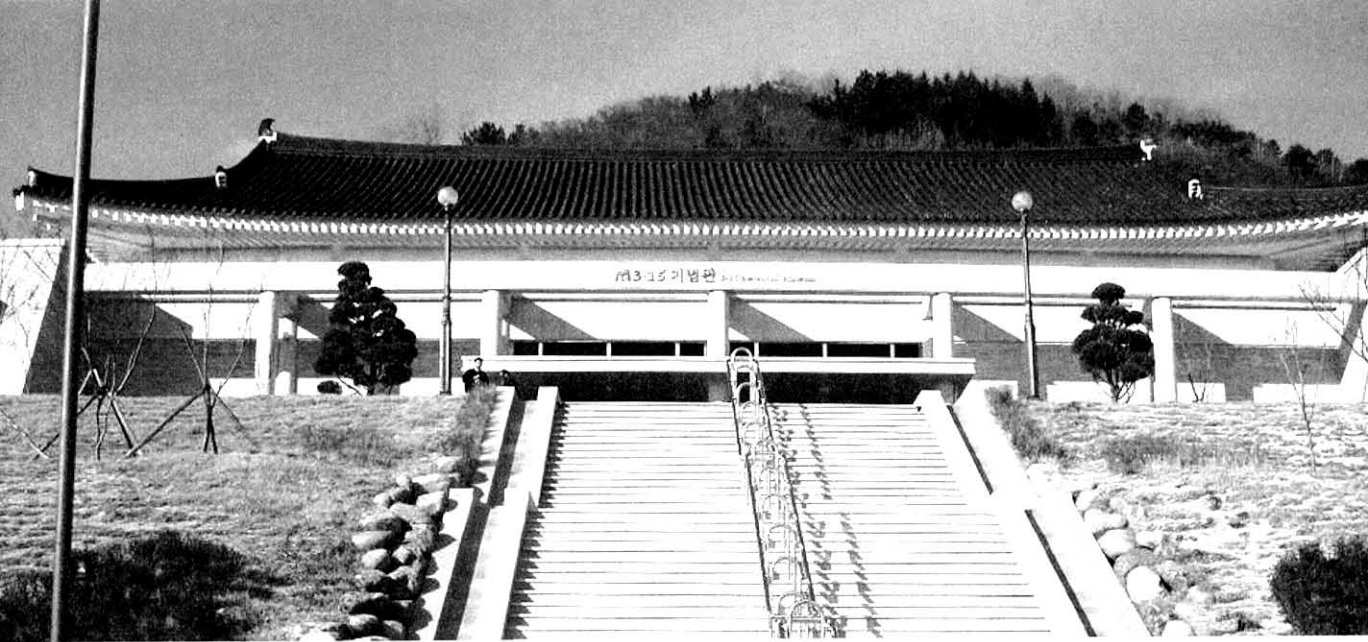
정 호 기(한국현대사회연구소 연구원)

4월혁명, 4·19혁명 그리고 3·15의거

4월혁명은 한국전쟁 이후, 사회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사건이었다. 4월혁명의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는 이견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1960년 3월과 4월에 있었던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집회 및 시위와 정권이 붕괴된 후 계속된 정치·사회적 변화를 지칭한다. 이를 사건으로 국한해 보면, 1960년 2월 28부터 4월 27일까지 전국에서 비연속적으로 전개된 일련의 집회와 시위들을 말한다. 그 동안 4월혁명보다는 2·28학생의거, 3·15의거 그리고 4·19혁명이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었고, 익숙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4·19혁명이 공식적 명칭으로 사용되어왔고, 현재에도 그러하다. 저항적

혹은 공식화를 위한 기억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전에는 4월혁명의 명칭과 대상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4월혁명이 시간 혹은 지역에 따라 분화 및 특화되면서, 위의 세 가지 사건들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이 세 가지 사건들 가운데 이번 호에서는 3·15의거를 다루고, 다음 달에는 4·19혁명을 조명하고자 한다.

마산에서는 1960년 3월과 4월에 크게 세 차례의 거리 시위가 전개되었다. 첫 번째는 3월 15일 민주당 마산시당의 '선거불법무효선언'을 계기로 촉발되어 이튿날 새벽까지 시내 전역에서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첫 시위에서 행방불명된 김주열의 사체가 4월 11일에 마산 앞 바다에 떠



오르자, 이를 목격한 학생과 시민들이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대를 외치며 15일까지 벌인 시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성명이 발표된 이후인 26일과 27일 부산에서 출발한 시위대 약 2,000명이 마산과 그 일대의 시와 군들을 횡단했던 것이다. 위 사건들 가운데, 마산 시민들은 자신들이 시위를 주도하였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만을 3·15의거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세 번째 시위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어쨌든 3·15의거에서 사망자 14명과 부상자 250여명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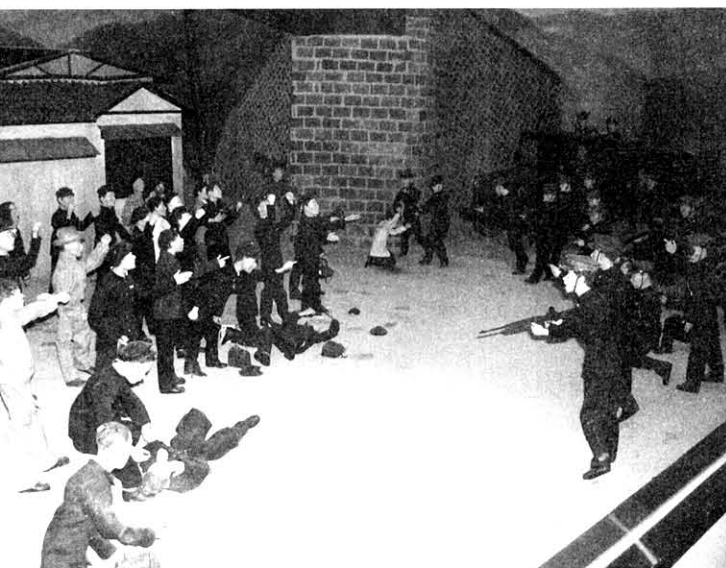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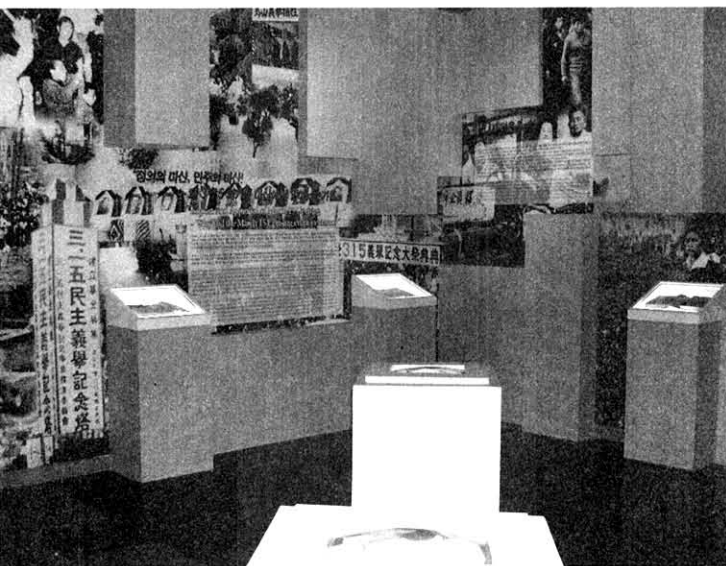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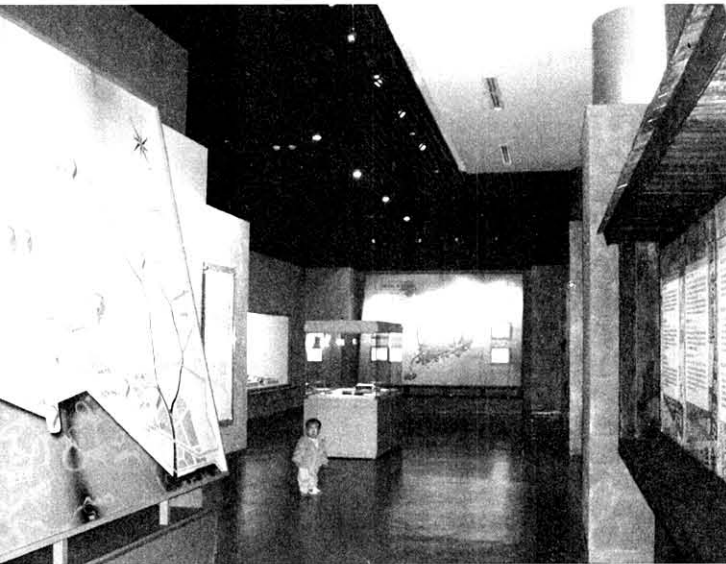
3·15의거의 분리 선언

1990년대 중반부터 3·15의거는 4·19혁명과 일정하게 분리된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는 4월혁명 직후부터 시작되었으나 5·16 군사쿠데타 이후 이루어진 기념사업을 통해, 그리고 5·16군사정권에 의한 4월혁명 관련 단체들의 해산 지시에 의해 통합되고 억압되었다. 그 후 1993년에 문민정부가 4·19혁명에 대한 기념사업을 발표하고 4·19를 '의거'에서 '혁명'으로 격상시키면서, 3·15의거의 독자성을 추구하려는 노력들이 다시 본격화되었다. 마산 사람들은 4·19혁명이 3·15의거로부터 촉발된 것임을, 그리고 이 두 사건이 일정하게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다. 3·15의거가 4·19혁명의 범주에서 독립하려는 경향은 사건이 지닌 시간적·

공간적 차별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3·15의거가 4월혁명에서 갖는 선도성과 상징성을 보다 강조하고 특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도 볼 수 있다. 즉 3·15의거에서 처음으로 4월혁명의 단초가 형성되었고, 경찰의 발포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는 점, 그리고 4월혁명의 상징적 인물인 김주열이 마산에서 사망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주장은 문민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가 실현되면서 힘을 얻었다. 그리고 구체적 실천은 4월혁명 전체를 포괄한 집단 묘지인 국립 4·19묘지와 분리된 새로운 집단 묘지의 조성으로 나타났다. '3·15성역공원' 조성사업으로 명명된 3·15의거 기념사업은 처음부터 국립묘지를 지향했다. 그래서 국립 4·19묘지와 비슷한 규모로 조성하려 했고, 묘지의 배치나 구성요소 등에 있어서도 일부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유사성을 간직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3·15성역공원의 위상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3·15성역공원을 국립 4·19묘지의 분묘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마산 지역의 반대 여론은 4·19혁명과 3·15의거의 경계선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이는 1992년 3월과 4월에 경상남도에서 발행되고 있던 지역신문들에 실린 기사와 주장들에서 잘 확인된다.¹⁾ 그리하여 2002년 8월 1일에 3·15성역공원은 국립 3·15묘지가 되었다.

1) 내용을 압축해 보면 다음과 같다. 3·15의거가 4·19혁명에 예속되어 있었으나, 3·15의거에서 4·19혁명이 파생된 것이며(경남도민일보, 2002. 3. 12), 3·15의거와 4·19혁명은 엄연히 정체성이 다르다(경남일보, 2002. 3. 18), 3·15성역공원이 국립묘지가 된 것은 5·18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경남도민일보, 2002. 3. 26).



3·15기념관 내 전시장

3·15의거 기념 사업

3·15의거의 첫 기념사업은 사건이 종료된 직후 세 가지 형태로 추진되었다. 첫 번째는 동아일보 마산지국이 주도한 기념탑 건립 사업으로, '민주햇불 기념탑 건립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어느 정도 사업이 본격화되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두 번째는 사망자와 관련된 학교별로 동창회, 재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이 중심이 되어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거나, 친구들이 기념비를 세워주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의거 직후 언론사에 유족 및 부상자들을 위한 조의금 및 위문금 형태로 접수된 각종 성금을 기반으로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기념사업 추진 조직을 결성하고, 3·15의거를 상징하는 대규모 기념탑을 건립하는 것이었다. 민주당이 주도한 기념탑 건립은 갈등 관계에 있던 신파와 구파가 임박한 선거와 이후 정치권에서의 세력 확장을 목표로 한 주도권 다툼의 격전지가 되었다. 두 개의 단체가 각각 독자적으로 3·15의거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3·15의거를 계승하는 적자임을 공인받으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국가의 예산 지원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은 늦춰졌고, 5·16군사쿠데타가 발발하면서 무산되었다.

5·16군사정권은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4월혁명이 필요했다. 4월혁명에 대한 입장 표명은 5·16군사정권이 통치체제를 안정화하고,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관문이었다. 그래서 5·16군사정권은 쿠데타를 4월혁명의 계승이며, 완성이라고 정당화했다. 그렇지만 4월혁명의 열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민중에 의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던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다. 5·16군사정권은 장면정권과 같이 4월혁명을 계속 '혁명'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평가를 지속한다면, 자신들의 쿠데타가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4월혁명 기념사업은 4월혁명의 효과를 잠재우기 위한 적절한 해결책으로 고려되었고, 가장 먼저 3·15의거 기념사업이 추진되었다.

3·15의거 기념사업이 4·19혁명 기념사업보다 빨리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적 정체성을 갖는 사건적 특성에 기인하였다. 이 특성으로 인해 5·16군사정권은 기념사업에 대한 지역 내의 의견을 신속하게 통합할 수 있었다. '3·15의거기념사업촉

성회'가 주관한 3·15의거 기념사업은 민간이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의 공모와 승인 과정, 예산 마련 과정, 그리고 주관 주체들의 특성 등에서 보면 명백히 정부 주도였다. 이 때 진행되었던 기념사업은 민주당이 진행했던 기념탑 건립(1962. 7. 10)뿐만 아니라 기념회관 건립(1962. 9. 20) 추진이었는데, 4·19묘지는 착공되기 전이었다. 기념회관 개관식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뿐만 아니라, 공보실장, 문교부장관, 해군참모총장 등 5·16군사정권의 실세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이들이 개관식 단상의 주빈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려보면, 5·16군사정권이 3·15의거 기념사업을 추진한 목적과 3·15의거의 상징성을 어떻게 전용하고 이용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3·15의거의 두 번째 기념사업은 문민정부가 4월혁명에 대한 기념사업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발표는 3·15의거가 4·19혁명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사건으로 기념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활성화시켰다. 그리고 한참 논란 중이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도 3·15의거 기념사업을 추동하는 요인이었다. 당시 문민정부는 4·19혁명과 3·15의거를 분리된 사건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주목할 만큼 3·15의거의 기억투쟁이 능동적이며 역동적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3·15의거 기념사업은 마산 지역 내에서 먼저 논의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3·15성역공원 조성은 목표로 했던 3·15의거 기념사업은 1993년 5월에 지역 출신의 정치인과 일부 부상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후 도의원 및 시의원을 비롯한 지역 내 정치인들, 언론사, 각계각층의 단체 등이 합류하여 '3·15의거기념사업회'가 출범(1993. 10. 19)하였다. 이 때의 기념사업에서는 지역 출신 정치인이 정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념사업회가 3·15성역공원 조성의 동기와 힘을 부여했기 때문에, 다른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들과 달리 기념사업회의 주도성이 매우 강력하다는 점도 특별하다. 어쨌든 1994년 5월에 '3·15의거 성역화 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었고, 1996년 1월에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이 후 부지 선정 문제로 난항을 겪다가, 1998년 3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약 5년 만인 2002년 10월에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고, 2003년 3월 15일에 기념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3·15의거 기념사업은 두 가지가 더 추진

되고 있다. 첫 번째는 1962년 건립된 3·15기념회관을 대체할 3·15시민회관 건립 사업이다. 마산시 양덕동 일원 21,454㎡의 부지에 6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이 사업은 2006년 말에 완공될 예정인데, 1,000명을 수용하는 객석과 대공연장과 400석 규모의 소공연장, 전시 시설, 회의실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다. 이 외에도 3·15시민회관에는 교양 강좌실, 3·15의거기념사업회 사무실, 예총 사무실과 놀이방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3·15의거 기념탑 등도 설치되어 기념공원의 형태로 꾸며질 계획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03년 말부터 시의 예산과 시민기금, 민·관 공동출자 등 총 18억을 투입하여, 3·15의거를 상징하는 '대중'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3·15의거 기념관

3·15의거 기념관은 유영봉안소와 더불어 국립 3·15묘지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건물이다. 정문의 전면부에 위치하며 전체 부지의 좌측에 위치한 기념관은 한옥 지붕의 2층 구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총 454평의 단층 건조물이다. 기념관은 중앙 로비에 두 개의 대칭적인 상설 전시실을 두고 있고, 영상관 혹은 세미나실로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강당 등도 있다. 주요 전시물은 당시의 정황을 담은 사진, 유인물, 도서, 그리고 사건 일지 등이다. 다른 민주화운동 기념관 혹은 전시관들에 비해 3·15의거를 입체적으로 재현한 디오라마(diorama)의 전시기법을 많이 사용하였다는 점과 만화를 활용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기념관은 1960년에 발생했던 3·15의거를 좀 더 사실적으로 그리고 극적으로 재현하였다는 평가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전시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마산지역을 배경으로 전개되었던 수많은 민주화운동들과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물론 이 기념관이 3·15의거를 주제로 한 것이며, 국립 3·15묘지 내에 위치한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기념관은 사실상 마산지역의 민주화운동을 총괄하는 의의를 지닌 건조물이기에 3·15의거가 이후의 민주화운동들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의 사회운동과 어떻게 연결 혹은 결합될 수 있는지, 그리고 3·15의거가 미래에 어떠한 방향으로 계승 혹은 복무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고민이 포함될 필요가 있었다고 사료된다. 이는 마산에서 3·15의거를 4·19혁명과 분리하여 강조하는 과정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 내외의 다른 민주화운동들

과도 분리될 수 있으며, 다른 민주화운동들의 의의를 축소, 저평가 혹은 억제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기념관이 하나 더 있다. 2001년 4월에 개관한 '고 김주열 열사 기념관'이 그것이다. 김주열은 남원 출신이었던 관계로 그의 시신이 고향에 묻혔고, 이로 인해 남원에 기념관이 건립되었다. 이곳에는 김주열이 중·고등학교 때 사용했던 책가방, 노트, 유년시절의 사진 등 유품 8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현재운동과 3·15의거의 만남을 희망하며

3·15의거는 계획한 모든 기념사업까지 마무리되면, 4월혁명 가운데 가장 넓은 기념공간과 시설물들을

갖게 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3·15의거의 기념공간과 시설물들이 이러한 규모로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들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밖에 없고, 정권의 변동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3·15의거를 계승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하는 과제는 이러한 기념사업의 규모에 걸맞게 오늘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전국 혹은 지역의 다양한 사회운동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많은 관심과 애정의 결과물인 3·15의거의 기념시설들이 더욱 진전된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15의거 주요 기념사업]

완공 일시	사업 명칭	건립 장소	주요 내용
1962. 7. 10	3·15의거탑	마산시 서성동	화강암을 쌓아 만든 12m 높이의 삼각기둥과 3인 조형물
1962. 9. 20	3·15기념회관	마산시 신포동2가	382평의 2층 콘크리트 건물로 기둥, 계단 등을 통해 3·15의거를 상징화함. 1996년 7월 용도 폐기됨
1999. 12. 30	3·15의거탑 주변 상징테마공원	마산시 서성동	3·15의거탑이 건립되어 있던 곳을 시민공원 형태로 확장하여 298평으로 조성
2002. 10.	국립3·15묘지	마산시 구암동	43,546평의 부지에 묘지, 유영봉안소, 기념탑, 기념관, 상징문, 조각 군상, 부조벽, 기념시비 등을 갖춘 국립묘지
2003. 3. 15	국립3·15묘지 내 기념관	마산시 구암동	국립 3·15묘지 내에 위치한 기념관으로, 내부 전시물과 시설물을 모두 갖추고 3월 15일 개관예정
2006년 말 예정	3·15시민회관	마산시 양덕동	3·15기념회관을 대체할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시설, 회의실, 관련단체 사무실 등 포괄 예정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아픔없는 세상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